

중기부, AI기업 50곳 선정 3억원내 지원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시행...7월 17일까지 접수

방은주 기자 | 입력: | 중기/벤처

#사례1: 장애물이 없는 외벽에만 그림을 그릴 수 있던 로봇에 AI 기술을 입혀 유리창 같은 장애물이 있는 곳도 자동으로 도장할 수 있도록 개발(제품금액 1840만원 → 4200만원, 128% 상승 기대)

#사례2: 식품 등의 이물질 검출을 위해 엑스레이(X-ray)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식에서 영상자료를 딥러닝으로 자동 판독하는 검사시스템 개발(제품금액 6000만원 → 1억원, 67% 상승 기대)

중기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신제품 개발에 중소기업 50곳을 선정, 과제당 1년간 최대 3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I기반 고부가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과제를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 추진절차



* (주관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개발 완료 단계 시제품에 AI기술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신제품으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하반기 공고에서는 특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BIG3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과제를 우대 지원한다. 오는 9월 중 최종 50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26개 과제가 뽑혔다. 경쟁률이 12:1에 달했다. 상반기 선정 과제를 보면, 헬스케어와 의료진단기기 등에 AI를 접목시켜 기존제품을 스마트화하거나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검사장비 또는 제어장비에 AI 기술을 입혀 위험성은 낮추고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과제가 주를 이뤘다.

하반기 과제 신청기업은 이달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smtech.go.kr)에 접수하면 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서 중소기업들이 AI기술을 활용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AI 대중화도 한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ZDNet Korea 무단전재-재배포 금지